

체계적인 구술기록 생산을 위한 제언

A Systematic Approach to Producing Oral Records

손 동 유 (Dong You Sohn)*
권 용 찬 (Yong Chan Kwon)**

목 차

- | | |
|----------------------------|---------------------|
| 1. 서 론 | 3.3 구술기록 정리단계 |
| 2. 구술채록의 유형과 현황 | 3.4 산출물의 표준화 |
| 2.1 역사사술 주제 및 대상 확장 | 4. 구술기록의 질적 가치 제고 |
| 2.2 사료보완을 위한 구술채록 | 4.1 구술기록의 가치 |
| 2.3 기관의 새로운 역사기록 및 홍보자료 생산 | 4.2 맥락확보 |
| 3. 체계적인 공정관리 | 4.3 촬영과 녹취문 작성의 중요성 |
| 3.1 구술기록생산 준비단계 | 5. 결 론 |
| 3.2 구술기록 생산단계 | |

<초 록>

최근 구술사연구는 학문적인 영역을 넘어 대중적인 소통방법이자 새로운 기록생산 방법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이는 그간 학문적인 성과와 과학기술의 발달이 만나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역사 기록의 부재로 인해 올바른 역사사술을 위하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 권력중심의 편중된 역사사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사술의 주체를 넓히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술기록생산은 프로세스 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구술결과물의 형식과 내용 모두가 양질로 확보되어야 한다. 구술기록을 생산 하고자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배경과 목적이 기록화 되고, 구술진행 과정과 산출물 취합과정도 기록화 되어야 한다. 또한 구술방식과 내용에 대한 해제는 물론이고 이들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개선점 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맥락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구술 프로세스 관리의 핵심이다. 이는 연구진 모두의 역할이고 질 높은 관리를 위해 관리전담자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구술내용의 맥락을 확보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다. 하지만 이는 면담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단계의 충실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단계의 해제로 마무리 된다. 또한 촬영영상과 녹취문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되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일이므로 숙련되고 전문적인 촬영자와 녹취자가 질 높은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확보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고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전산적 환경에서 관리, 보존, 서비스 할 수 있는 '구술아카이브시스템'이 관련 연구자들의 협업을 통하여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구술기록, 구술기록생산, 구술아카이브, 표준화, 활용성, 맥락

<ABSTRACT>

While academic discussions and methodological researches on oral history are being progressed in Korea, its exploitation has already begun to increase with a variety of methods and approaches in the private sector. Oral history is a new method of research, as well as another process of production of archives. In order to make valuable and highly qualified archives of oral history with the application of the aforementioned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its recognition, environment, process, and method should be improved and develop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regarded as reasonable that oral history is recognized as a part of the strategy for documentation. Oral history should be produced based on common sense and reasonable judgment, applying empirical know-how rather than logic or principles because it holds a great number of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 variable elements in the field of oral history. In addition, its process or documentation methods should be improved and developed, giving consideration to thorough exploitation. The promotion or revitalization of oral history is a signal that announces the advent of new archives and the new subjects of history at the same time. Endeavors to produce highly efficient archives of oral history are expected to be continued with the complex accumulation of empirical assets achieved at academic discussions and its fields.

Keywords: oral history, oral archives, oral record, standardization, efficiency, context

*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ndawn@naver.com)

**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선임연구원(radiyong7@gmail.com)

■ 접수일: 2013년 3월 20일 ■ 최종심사일: 2013년 3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20일

1. 서론

구술사란 “구술기록에 근거한 역사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사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구술기록의 생산, 관리, 보존, 활용 등이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한국에서의 구술사 연구는 1980년대 군사정권에 대한 반정부 민주화운동의 고양기에 역사학계에서도 새로운 역사쓰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본격화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출간된 『역사비평』의 현대사 증언 시리즈이다. 이는 당시 문헌기록의 부재로 인한 역사연구의 어려움을 역사학계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은 결과이고 이후 민주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구술증언 사업을 촉발시키기에 이르렀다(윤택림 2012).¹⁾

구술사의 출발은 억압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았던 보통 사람들의 삶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한 서발턴(Subaltern) 연구에서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근현대사 문헌기록생산량의 일천함과 부패하고 부도덕한 권력과 권력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기록 은폐와 폐기로 인해 기록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역사왜곡까지도 자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때문에 정치, 군,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른바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기록원 등에서 수행하는 구술채록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현대사 속의 정부관료, 정치인, 명망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지난 행적을 증거하는 문헌기록의 부족함과 그간 국가기록관리의 부실함을 보완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실 발굴과 해석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술기록은 주관성, 정확성,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실물기록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긍정성이 인정받고 있는 양면이 있다(김명훈 2010a).²⁾

뿐만 아니라 역사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기록학 등 관련 학문분야에서는 구술사 연구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³⁾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구술채록(사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대부터는 구술사, 구술기록과 관련한 꾸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일부 연구자들이 구술사 방법론을 이용하여 학위논문을 발표한 이후 기록학을 중심으로 구술기록의 수집과 관리 방법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⁴⁾

1) 1980년대까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국가, 민족, 나라, 사회가 사회적 담론에 주체가 되었고, 거시적 구조와 민족적 사건이 사회적 관심사였다. 따라서 집단주의적 사회 속에서 개인과 지방은 국가와 민족의 그늘하에 있었다. 그러나 20년간 군사 독재와 급격한 경제 개발이 가져온 사회적 모순들이 표출되면서 그 동안 억압되었던 과거사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반정부 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2) 김명훈의 2010년 논문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에서는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채록에 대한 쟁점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3) 한국구술사학회는 지난 6월 8일 2012년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구술사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 등 구술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4) 1990년대 구술사 방법론에 기초하여 연구한 연구자로는 김성례(1989), 윤택림(1992), 유철인(1993), 최경숙(1995), 김귀옥(1999) 등이 있고, 2000년대 들어서면 전순옥(2001), 이희영(2004), 한모니까(2009), 김명권(2009), 윤대중(2010)의 박사학위논문과 이선형(2002), 권미현(2004), 한정은(2007), 권명숙(2007), 김지수(2008) 등의 다수의 석사학위 논문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양적증가는 단순히 그 시기의 연구 트렌드를 넘어 사회적 필요성과 수요를 대변해 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기록원(및 대통령기록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예술훈예원은 물론이고 과거사 청산 및 현대사 심층연구와 자료 확보를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5·18 기념재단, 제주 4·3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도 구술채록을 하고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국가기록원 2007).⁵⁾ 이와는 별도로 일부 대기업에서 회사의 역사정립 및 홍보자료축적을 위하여 구술채록을 통한 구술기록 생산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⁶⁾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증언, 구술채록사업의 특징은 역사속에서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의 발굴을 통한 새로운 역사의 증거나 문헌기록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역사적 사실에 덧붙이는 형식의 구술이라면, 민간의 방식은 그와는 다른 내용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들에 비해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KBS, MBC, SBS, EBS 등에서 다양한

구술자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확보하거나, 구술채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기도 하며, 채록된 내용은 운문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한다(국가기록원 2007).⁷⁾ 이는 방송기법 면에서도 기존의 일반적으로 지식과 교양을 전달하려는 방식보다는 대화방식의 소통을 통해 맥락과 정황까지도 전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이야기 집단(Story Corps)'의 경우 2003년 10월에 시작하여 약 6년에 걸쳐 5만 명 이상의 참여로 3만 건 이상의 인터뷰를 녹음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련 내용을 엮어 책을 내기도 했다.⁸⁾

또한 이들은 인터뷰 내용 중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만 따로 모아 『고마워요, 엄마(MOM, a celebration of Mothers from Storycorps)』(돈을새김 2011)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책 서문에서 '여러 세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전달하려는 프로젝트이며 어머니들의 삶의 지혜는 물론이고 친밀함과 갈등, 애끓는 마음과 웃음, 강인함과 우아함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 브로니 웨어(Bronnie Ware)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5) 2007년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한 『구술기록물 종합관리체계구축 방안 및 구술채록을 위한 연구』에서 국내외 기관의 구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다룬 바 있다.
 6) 일부 기업에서 역사자료축적 및 홍보자료 마련을 위하여 CEO 및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구술채록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7) 국내 방송사 등 구술대담 자료는 EBS 추모특집 '강원용 목사 그 삶과 철학'(2006-08-21), EBS 특별기획 '백남준 그 꺼지지 않은 예술 혼'(2006-02-21), EBS 시대의 초상 23부작, EBS 다큐-인(人) 40부작, EBS 명의 36부작, EBS 다큐-여자 262부작, EBS 다큐-맞수 96부작, EBS文化人시리즈: 제2편 100인의 증언, 60년대 문화를 말한다 10부작, EBS文化人시리즈: 제4편 100인의 증언, 7,80년대 문화를 말한다 14부작, KBS 다큐미니시리즈 인간극장 1690부작, KBS 대화, 21세기 등이 있다.
 8) '이야기 집단' 홈페이지 주소는 <<http://storycorps.org/>> [cited 2013.4.3]이며 활동의 배경, 과정, 결과물 및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구술채록 방법으로 구술자가 방문하는 방법, 구술자에게 방문하는 방법, 장비를 대여하는 방법, 구술자가 자체 제작하는 방법 등 이용자(구술자)편의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읽어 펴낸 책 『죽을 때 후회하는 다섯 가지(The top five regrets of the dying)』는 구술의 확장
과 활용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 책의 저자
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부정하고 공포와 분
노를 느끼던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이 되자 많은
생각을 거쳐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히면서 환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인식하
지 못하는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하여 소개하
고 있다.⁹⁾

학문적 검증과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 중인 가
운데 이미 민간영역에서 구술은 현시대를 살아
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지혜’, ‘죽음’, ‘행복’ 등 다소 추
상적이지만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화두를 제
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구술하는 과정을 통
해 ‘치유’를 도모하기도 한다.¹⁰⁾ 이는 학문적 원
칙과 원칙에 입각한 형식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경직된 구술채록 방법론에는 무언의 경고를 주
면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구술채록은 ‘기억의 기록화’ 작
업이며, 구술기록은 다른 여러 종류의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기획, 생산단계부터 향후 활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구술채록
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구술기록 생산과정
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함을 강조하고 구술기
록의 질적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 제안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자 한다.

2. 구술채록의 유형과 현황

구술채록은 연구과정에서 자료 확보를 위해
개별연구자가 진행하는 경우, 연구 집단이나 기
관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 등
뚜렷한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 장에서는 구술채록이 진행되는 유
형을 범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역사사술 주제 및 대상 확장

구술사연구는 실증주의에 기반한 역사학계
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이미 미국, 영
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서구에서도 새
로운 역사연구 방법론으로 인정받고 있고, 새로
운 이론과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윤택림, 한한희 2006).

구술사에 대한 정의는 구술사 연구자마다의
연구 방식이나 자신이 속한 나라의 연구 경향에
깊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
우 구술사가의 아키비스트적인 역할을 강조하
면서 구술자료의 수집과 관리의 연구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반면에 이탈리아의 경우는 구술의
서술적 측면과 해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윤택림 2010).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까지 구술사에 있어서
중심적인 흐름은 특히 기록을 남길만한 처지와
조건에 있지 않았던 계급, 계층인 이른바 서발
턴(subaltern)을 대상으로 한 구술사연구였다.

9) <<http://www.guardian.co.uk/lifeandstyle/2012/feb/01/top-five-regrets-of-the-dying>>. [cited 2013.4.3].
10)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 윤택림. 2011. 구술사 인터뷰와 역사적 상흔: 진실 찾기와 치유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30. 을 비롯하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인문치유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1960년대까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을 이루었던 미국 구술사 연구의 경우 인류학자들이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과 협력하여 북미 인디언과 멕시코 원주민을 연구하기도 했으며, 1970~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인디언, 흑인, 여성의 역사를 연구하는 등에 구술사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윤택림, 함한희 2006).

영국에서는 사회사학자 폴 톰슨(Paul Thompson)이 1978년 그의 저서인 『과거의 목소리』에서 구술사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었고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중심적인 자리를 줄 수 있고, 새롭고 다양한 접근과 자료를 통해 과거를 사실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즉 하층민, 비특권 집단, 패배자도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역사서술의 방식을 아래로부터의 역사서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역사는 구술사를 통해 더 민주적이 되어 간다는 주장을 폈다(윤택림 2010).

이에 대해 1990년대 이후 유럽의 구술사가들은 지식인 구술사연구자와 연구 대상인 구술자들의 사회적 분업을 인정함으로써 톰슨 스스로 지향한다고 밝혔던 구술사의 정치성에 모순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톰슨은 구술기록을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헌기록과 별반 다르지 않게 활용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영국의 구술사연구는 1973년 구술사학회 성립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노동자 의식의 형태, 도시 지역사회 연구, 가족과 일에 대한 연구 등

에 뚜렷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독일 구술사연구의 경우에도 소위 힘없는 사람들인 비조직화된 노동자들, 하녀, 소브루주아지, 농민, 실업여성,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루었다(윤택림, 함한희 2006). 특히 다양한 아카이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와 같은 구술사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현재에도 꾸준히 구술기록을 축적 중에 있다. 프랑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비엘리트 계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개인을 회복시키려는 경험적이고 방법론적인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 같은 서구의 구술사연구는 대체로 구술사 아카이브¹¹⁾로 집대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구술 기록 수집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구술사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그간 군사정권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민중은 국가와 민족의 뒤편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후 1980년대 민주화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민중들의 자생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관련 연구자들의 활동을 통해 서서히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그 동안 다양한 한국현대사 증언 시리즈의 구술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뿌리깊은 나무의 『민중자서전』 시리즈, 서울시사편찬위원회의 『서울 토박이 사대문안의 이야기』,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의 『한국민중구술열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소외계층 혹은 비엘리트계층에 대한 구술체록을 통하여 구술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1) '구술사 아카이브란 구술기록 생산준비과정, 생산과정, 관리 및 보존과정, 서비스과정에서 산출되는 기록과 구술연구주제, 구술자와 관련된 역사자료까지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하는 공간 및 기구'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구술기록'만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일컫는 기존의 '구술아카이브시스템'이라는 표현과도 차이가 있다. 본고의 정의를 활용하자면, '구술사 아카이브'들에서는 저마다 필요한 기능과 요건을 갖춘 '디지털 구술아카이브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구술자 섭외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구술작업에서 유효한 구술자를 섭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엘리트 집단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필, 연락처, 근황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사전접촉을 통해서 구술자를 선정해야한다. 이때에 구술주제와 관련하여 시기, 장소, 세부 주제를 구체화하여 최대한 구술자폭을 좁히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¹²⁾

또한, 구술자가 구술환경과 연구진에 대하여 낯설기 때문에 라포(rapport)형성을 위해 충분한 교감과 준비가 필요하다. 구술채록에 대한 충분한 설명,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구술환경 조성, 사전질문에 대한 협의와 공유 등 사전 준비를 구술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구술사연구는 궁극적으로 역사서술의 주체와 대상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역사연구에 질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다(이용기 2009).¹³⁾

2.2 사료보완을 위한 구술채록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국가기관에서는 특정 시기, 지역 및 주제에 대하여 '프로젝트성' 연구용

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1년 이내의 단기연구는 '1970년대 복지정책관련 주요인사 구술채록사업', '전직 대통령 관련인사 구술채록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었다.

장기간 연구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현대 한국 구술사연구사업'으로 10년 동안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경제, 군, 종교 등에 대하여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구술채록을 하는 사업이다.¹⁴⁾

이를 통해 관련 기록이 부절절하게 폐기되었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아 관련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새로이 기록을 생산 및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엘리트구술¹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 각 분야의 정책생산과 집행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주요 구술자로 한다. 학계 일각에서는 엘리트 구술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있는 상황이지만 절대적으로 기록이 빈곤한 현대사 제 분야에 대한 기록 확보, 기록의 조작 또는 왜곡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한 확인,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한 정정, 새로운 사실 발굴 등의 필요성으로 엘리트구술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구술이 내용적으로 가치를 높이고 활용성도 높이려면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의 책임

12) 이 경우에 리드파일(lead file)과 케이스파일(case file)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은 이후 연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13) '민중자서전'시리즈(전20권)는 목수, 양반가 며느리, 보부상, 웅기쟁이, 길쌈아낙, 소리꾼, 화진민, 농부 등 평범한 사람들의 잊혀져가는 삶이나 사라져가는 전통의 흔적을 남기려는 목적에서 구술자의 생애사를 정리하였다. '민중자서전'은 최소한의 편집과 운문을 제외하고는 구술자의 말투와 사투리까지 그대로 살려서 텍스트화하였으며, 구술자와 면담자가 공동의 저자가 되면서도 구술자의 목소리와 면담자의 해설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구술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14) 관련 홈페이지 주소는 <http://modernkorea.aks.ac.kr/07_story/story_01.asp> [cited 2013.4.18]이다.

15) '엘리트 구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합의와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를 갖고 정책결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을 의미한다.

자 그룹뿐만 아니라 집행의 실무자 및 정책수혜자도 함께 구술채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로 정책입안에 참여했던 장·차관과 고위관료,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관계자, 재계 명망가, 군 장성급, 종교지도자들을 주요구술자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정당관계자, 영관급 장교, 기업임원, 소장파 종교지도자들도 정책결정 및 정책실행에 대한 주요한 구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므로 구술채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정책과 관련하여 수혜집단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구술을 통하여 해당 정책이 추진된 배경, 과정과 함께 실현된 이후 영향에 대하여도 입체적으로 구술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구술주제를 중심으로 엘리트집단은 물론이고 비엘리트집단의 구술도 함께 채록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사료보완이라는 애초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구술기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주로 추진기관이 외부 연구집단에 의뢰하는 외주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각 사업마다 프로세스와 산출물이 상이하여 개별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으며, 예산 배정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연구의 특성상 프로세스가 모두 동일할 수는 없고 외주용역 방식의 경우 입찰과정을 거치기에 다소 상이한 예산 근거나 산출물이 제시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준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토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구술채록을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술기록화와 관련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기관측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충분한 토의 속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3 기관의 새로운 역사기록 및 홍보자료 생산

구술자에 대한 신뢰는 구술내용의 신뢰로 이어진다. 구술자에 대한 신뢰는 그의 삶의 궤적에 대한 신뢰와 해당 주제, 지역, 시기에 대한 구술자의 관계정도에 기초한다.

따라서 민간기업 등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기업의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신뢰받는 관련인물을 내세워 보강하고 확인하며, 이를 통해 외부에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내부적으로 구술이 진행되며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되어있는 상황이므로 목표에 맞는 내용을 손쉽게 채록해 낼 수 있다.

하지만, 구술자와 면담자간에 지나친 목표의식 공유로 자칫 작위적인 내용을 생산하여 오히려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를 도출할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창업주 혹은 CEO의 활동에 대한 구술을 채록할 때 전 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만 한다면 미화위주의 발언이 주종을 이룰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때에 간부, 중간간부, 일반직원 및 노동조합관계자들을 포함하는 폭넓은 구술을 확보한다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구술결과를 취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다른 형태는 언론사 등에서 주로 하는 일반적인 인터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구술사의 범주에 두어야 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방법, 목표, 활용의 효과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구술사의 범주에서 제외할 이유 또한 없으므로 구술사연구방법의 한 파트로 인입하여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목적의식적으로 결론을 유도하

는 식의 인터뷰, 한담 위주의 인터뷰, 주장만 강조되는 인터뷰 등은 구술차원에서는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특정 사안에 대한 새로운 사실 및 등이 전제될 때 구술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3. 체계적인 공정관리

구술 프로세스와 유의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¹⁶⁾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성과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재정리 해보고자 한다. 구술기록생산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준비단계, 실행단계, 정리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모든 단계는 구술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구술기록 생산 준비과정, 생산과정, 관리 및 보존과정, 서비스 과정의 모든 단계를 단일한 체계에서 운용하는 전산적 체계를 ‘디지털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는 명실상부한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서비스를 위한 ‘구술 아카이브’ 혹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입력 및 관리 및 서비스기능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등은 있지만, 구술의 기획 단계에서 서비스단계까지 모든 공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효율적 체계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술기록 생산 과정의 특성은 구술연구자 및 구술자의 협업임과 동시에 기획, 촬영, 녹취 및 과정관리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업과정이라는 것이고, 구술결과물 또한 사회 공공의 자산으로서 과학적 관리와 공유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바,¹⁷⁾ 향후 효율적인 전자적 구술아카이브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본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

3.1 구술기록생산 준비단계

구술기록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역할에 따라 구분하면 기획자, 구술사연구자(면담자), 관리자, 촬영자, 녹취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획자는 해당 구술에 대한 필요성과 배경을 인식하고 최초 준비를 시작한 연구자 또는 기관이다. 기획자와 구술사연구자가 동일한 일수도 있고 구술채록을 하고자 기획한 기관에서 연구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관리자는 보조연구자 및 보조면담을 함께 수행하면서 구술기록 생산 전체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관리자는 각 영역의 참여자들간의 소통의 창

16) 기존 관련 연구사례로는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 : 방법과 사례』, 선인. ; 권미현, 2005,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10, 등이 있다.
 17)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조용성, 2010, 구술기록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호. ;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권 1호. ; 김귀옥, 2008, 구술사연구현황과 구술사 아카이브의 구축, 『국가기록연구』, 4 등의 연구가 있다.

구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촬영자와 녹취자는 말은 바 특정한 역할을 집중해서 정확하고 치밀하게 수행해 내는 전문가이다. 이들 전 공정에 있어서 한 사람이 복수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기획, 연구, 관리, 촬영, 녹취의 각 영역은 구술기록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역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정의 흐름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¹⁸⁾

준비단계는 구술에 대한 기획내용을 기반으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구술자를 섭외하고 면담일정을 확정된 뒤, 사전질문지를 보내 구술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질문을 확정하는 등 면담을 하기 전단계의 모든 준비를

마치는 과정이다.

충분한 사전연구 없이는 구술자에게 양질의 내용을 채록하기 어렵다.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계의 기존 연구성과는 물론이고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주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에 따라 구술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세부주제를 설정해야 한다.

이때에 객관적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 의심의 여지가 있는 내용 등으로 주요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면담 종료 후 해제작성에 반영하여 내용적 평가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다.



<그림 1> 구술기록 생산 공정도

18) 이 그림은 김명훈, 2010b.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산 및 정리·보존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14쪽의 그림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현대 한국 구술사연구사업'과정에서 참여연구진들의 협력으로 작성한 흐름도를 참고하여 새로 작성한 그림이다. 전체적으로 구술기록 생산과정을 대, 중, 소 단위로 구분하였고, 각 세부공정마다 수행자를 명시하였으며, 준비단계에서 잠재구술자관련 연구, 정리단계에서는 해제작성, 평가 등의 중요절차를 보완하였다.

준비단계에서 조사되는 잠재적 구술자에 대한 리드파일(lead file)을 작성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술이 필요한 주제와 관련된 인물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 연구하여 명단을 작성한다. 연구를 통하여 관련인물을 정리해 내고 이들을 역할, 입장, 관련정도 등 기준에 따라 범주화하여 잠재적 구술자 명단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 구술자들에 대한 생사여부, 연락처 확인, 최근 동정, 타 기관 구술면담 진행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함께 수행한다.

잠재적 구술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강 등의 이유로 구술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비구술자 명단을 작성한 뒤 연락을 취한다. 구술채록에 있어서 공동연구방식으로 진행될 때 연락을 전담하는 팀을 두기도 하는데, 구술자와 리포형성을 위하여 구술연구자가 사전접촉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접촉과정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케이스파일(case file)을 축적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후속 연구시에 시행착오를 줄여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해 주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접촉일시와 대화내용, 잠재적 구술자의 질문 및 소통의 특징, 주변인 및 관련기록에 대한 정보, 관련 인물을 소개해 준 내용 등 접촉과정에서 오고갔던 상세한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¹⁹⁾

면담요청에 응하여 구술대상자로 확정된 인물과는 안정적인 면담일정을 계획하여 공유하

고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를 보내 구술자와 연구자간의 조율을 거친다. 이는 구술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고, 구술자와 면담자간의 충분한 교감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구술자에게 면담 진행상의 유의점에 대하여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여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유의할 점은 사전질문지에 수록된 구술자정보의 질에 따라 구술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고 상세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우호적으로 구술에 응하는 한편,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구술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양상이 나오기도 한다. 사전 조사, 연구가 구술채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3.2 구술기록 생산단계

구술기록 생산단계는 구술에 필요한 사람과 장비를 확인하고 실제 구술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면담자, 촬영자 간의 면담진행의 공정 및 유의사항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상을 촬영할 때 테이프의 시간이 일반적으로 1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촬영자가 원활한 면담을 위하여 면담자에게 수신호 등을 통하여 종료시간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55분가량 진행시 신호를 주면 구술자의 발언과정에서 무리 없이 마무리를 하고 테이프를 교체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술자의 휴대전화나 자택 초인종

19) 현재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구술 사업으로 인해 엘리트 구술에 대상자들은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구술 요청을 받아 혼란스러워하거나 신뢰성을 의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적어도 국가기관에서는 기관간 협력체계를 두어 정보공유를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올린다는가 발언과 관련된 기록을 보여주기 위하여 갑자기 몸을 움직인다거나 하는 돌발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하여 사전에 교감을 이루어 놓는다면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면담장소는 구술자의 이동이 편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구술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구술자가 선호하는 장소를 먼저 확인한 후 촬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요구에 맞추는 것이 좋다.

면담 시작 전에는 구술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재설명과 면담진행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술자와 면담자간의 수신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자세와 음량 등에 대하여 설명 및 테스트를 거친 후 실제 면담을 진행한다. 테스트 단계에서 미심쩍은 장비의 이상 등이 확인될 때는 면담자를 통해 구술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상 부분에 대한 완벽한 해결을 하고나서 진행해야 한다. 또다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구술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일은 최악의 상황인 것이며, 만일 한다 하더라도 처음과 같은 구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동시에 문제 발생시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완료하고 진행해야 한다.

문제발생을 최소화 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담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문제발생시 대응매뉴얼을 준비하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담실행 직후에는 구술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촬영장비와 인력이 철수하기 전에 현장에서 만들어졌어야 할 산출물이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점검한다.

3.3 구술기록 정리단계

정리단계는 촬영 후 구술자별, 면담횟수별로 각종 산출물을 기록화하고 최종적으로 구술자의 확인을 거쳐 해당 구술을 종료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녹음, 녹화자료를 생산하고 구술자 및 면담자 신상정보, 면담일지, 면담후기, 녹취문, 상세목록 등을 작성하여 기록화 한다.

기록화한 산출물 중 구술자의 검토가 필요한 영상, 녹취문 등은 구술자가 직접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비공개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여 사소한 오류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비공개는 구술자가 설정할 수 있지만, 저작권분쟁, 명예훼손 소송 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진에서도 비공개 설정을 할 수 있다. 기록과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공개 설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기록의 공개를 통해 발생 예상되는 문제를 고려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구술자의 검토 후에는 연구자의 해제가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4.1절에서 추가로 서술하겠다.

이와 같은 모든 구술과정의 산출물을 취합, 정리하여 마무리한다.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평가이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이 해당 구술채록의 진행과정, 구술내용, 진행방식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평가를 하여 이를 회의록으로 남김으로써 해당연구의 특징을 기록하고, 후속연구 때 참고할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3.4 산출물의 표준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술기록생산과정의 모든 단계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준비하고 또한 만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단순히 구술된 내용자체 즉, 음성, 영상, 녹취문 등만을 기록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를

꼼꼼히 기록하여 구술기록의 맥락을 최대한 확보하여 생산,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구술채록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할 때 세부공정과 그에 따른 산출물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구술과정에서 구술자로부터 실물기록을 수집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기록수집 처리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집

<표 1> 구술 공정별 산출물

단계	공정		산출물	비고
준비단계	주제연구	정보수집과 분석 주제 설정 세부주제 선정	연구보고서	
	구술자섭의 및 구술일정	잠재적 구술자 조사/연구 예비구술 대상자 선정 예비 구술 대상자 접촉 및 접촉정보 기록 구술 일정 조율 구술대상자 확정	잠재적 구술자명단(lead file) 예비구술자명단 예비구술자 접촉정보(case file) 구술실행 계획서 사전질문지 확정 질문지	
	사전질문지 작성	구술자와 의견 교환 질문지 작성 완료 및 발송		
실행단계	구술실행 준비	서식 및 장비 준비 장비 점검 구술참여자 약속 재확인 사전 리허설	구술동의서	실물기록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관련 서 식필요
	구술실행	구술 장소 및 환경 확보 장비 설치 면담안내(구술동의서 작성) 녹화 및 녹음 테스트 면담 실시 구술 진행시 산출물 점검	음성(파일) 영상(파일) 사진(파일)	
정리단계	기록화	면담일지/면담후기 작성 구술자/면담자 신상정보 작성 녹음/녹화 자료 정리 및 생산 녹취문/상세목록 작성	면담일지 구술인코딩파일 (M2T, Mpeg2, MP4) 녹취문(수정녹취문) 상세목록	SMI(자막) 파일 작성 여부 판단
	마무리	영상자료/녹취문 전달 및 검독 검독내용 수렴 활용 및 공개동의서 작성 해제작성 산출물 취합 사업 평가	구술자 검독확인서 구술자료활용동의서 면담자 검독확인서 구술해제문 산출물목록 평가서	

기록을 구술과정 일부의 산출물로 첨부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록수집 프로세스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활용하여 기록물 수집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기관에서 구술채록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수집주체에 대한 협의 및 확정을 거쳐 기록을 수집해야 하고 구술기록과 수집된 실물기록과 연계정보를 구축하여 향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구술기록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자막을 함께 서비스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구술기록은 구술자의 말, 행동, 표현, 억양 등 구술자의 발언내용과 형식 그 자체이다. 녹취문 또한 향후 검색 및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텍스트이다. 따라서 이 텍스트를 그대로 또는 윤문하여 사용하는 자막의 경우에는 구술기록을 이용자에게 원활하고 친절하게 서비스하고자 생산한 새로운 콘텐츠이다.

자막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가독성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자막이 있는 영상은 구술자의 언행과 표정 및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는데 오히려 저해가 되기 쉽다. 구술자료의 특성상 자막은 오히려 구술의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²⁰⁾ 이용자가 자막으로 시선을 빼앗기는 동안 구술자의 표정이나 동작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음, 특수용어, 심한 사투리 등으로 인해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의미전달이 어려운 경우 혹은 청각장애우들을 위한 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자막을 삽입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자막은 각 기관에서 구술기록 서비스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술기록의 의미와 가

치를 살리는 방향을 원칙으로 시행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기록환경에서 영상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최근에는 구술기록이 주로 영상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녹취문 전문은 검색 및 연구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영상은 용량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여 적당한 분량으로 나누어 서비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술기록 자체가 변형되거나 조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막의 경우에는 윤문과정을 거치면서 변형 및 조작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술기록생산관리 영역이 아닌 서비스 영역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술기록의 진본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구술기록과정의 산출물 표준화에 대한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표준화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적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서 구술채록 기관이나 연구 집단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상황은 인정되어야 하나, 공동적으로 활용될 만한 서식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구술기록의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글에서는 면담일지의 예를 들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면담일지는 면담이 끝난 후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다. 면담을 마친 직후에 면담상황에 대한 기억이 충분히 살아있을 때 면담자가 면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 가능하다면

20) 구술자료는 구술자가 하는 말이 고유의 특성과 구술내용과 상황을 반영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제될 수 없고, 텍스트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독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면담 종료 후 최소 24시간 이내에 정해진 양식에 맞춰 면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담일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기록의 맥락을 확보하여 질적가치 및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술 면담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정보와 구술 내용 중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나 면담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나 구술내용에 대한 판단·평가 등도 적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면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수집된 기록자료, 추가 인터뷰 여부 등의 면담 진행에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면담일지는 구술자의 상황이나 면담장소의 특징까지도 반영하기 때문에 면담을 진행하는 회차별로 작성을 해야 한다.

면담일지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서 ① 제목 및 주제영역, ② 생산정보영역, ③ 주기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제목 및 주제영역은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는 전체 사업이나 과업의 제목과 해당 인터뷰에서 밝히거나 또는 증언을 남기기 위한 주요한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영역이다. ② 생산정보영역은 구술인터뷰의 대상자와 면담자를 비롯한 장소와 시간 등의 객관적인 사실의 정보를 남기는 영역이다. 면담 수행을 준비하는 과정, 즉, 구술자와 접촉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촬영 또는 녹음을 수행한 결과를 입력한다. 실제 면담 과정에서 확정된 정보를 정리해 두었다가 면담일지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③ 주기영역은 구술 면담의 내용이나 배경상황, 구술자의 특기 사항 등을 구술자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입력하는 영역이다. 면담일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의 맥락을 확보하는 부분이며 면담자가 직접 작성하며, 경우에 따라서 보조면담자, 촬영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면담일지 영역별 입력 요소

영역	입력 요소	작성 요령
제목 및 주제영역	사업 또는 과제명	구술사업의 명칭과 사업하위의 구술과제를 기입
	면담 주제	개별 회차에서 인터뷰한 주제 기입
생산정보영역	구술자	구술 대상자의 이름과 간략이력, 직책 기입
	면담자	면담자의 이름과 직책 기입
	보조면담자	보조면담자가 있을 경우 기입
	촬영 및 녹음자	촬영감독 또는 녹음을 위한 인력 이름 기입
	면담 일시	년/월/일/시
	면담 장소	면담장소의 상세한 주소까지 기입
	면담 회차	개별 회차/전체 회차의 형식으로 기입
	면담 시간	면담 진행 시간을 시/분/초 단위로 기입
주기영역	면담 내용	면담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기입
	주요 색인어	구술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색인어를 기입
	면담 후기	면담자의 면담 후 느낌 또는 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기입
	특기 사항	면담내용과 관련한 특기사항 또는 구술자의 기타 정보에 대하여 기입
	수집 자료	구술 면담 이외 구술자를 통해 수집된 자료여부 기입 (수집가치가 있는 기록물 보유여부도 기입)
	추가 인터뷰 여부	추가 인터뷰 여부에 대한 내용 기입

작성된 면담일지는 해당 면담의 객관적인 정보와 면담자가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정리하여 보여주는 전반적인 정보가 종합되어 있어야 한다. 면담일지와 면담후기를 하나의 서식에서 정리하고 입력하는 것이 면담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현재 구술기록 생산과정에 대한 몇

개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로 차이가 있다.²¹⁾

A기관은 면담일지와 면담후기를 별도로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면담일지와 면담후기 모두 면담 회차별로 작성을 하기에 하나의 서식에서 통합적으로 정리 작성하는 것이 면담자에 의한 기억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활용에 용이할 것이다. <표 3>과 <표 4>는 각각

<표 3> 면담일지와 면담후기를 별도로 작성하는 사례

면담일지			
구술과제			
구술자			
일시·장소	회차	일시	면담자
	1차		장소
	2차		
결과물		녹음테이프 ()분용 ()개 녹음파일 ()개 녹화테이프 ()분용 ()개 사진 ()컷 녹음시간 ()시간 ()분	
면담주제			
특기사항			

면담후기(1/2)			
과제명			
면담일자		회차	
구술자		면담자	
면담장소			
소요시간			
주요면담내용			
준비사항			
진행상황			
추가구술 필요성			
기타 사항			

21) 각 기관에서도 서식을 정립해 가는 과정이고, 기관 고유의 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서 기관이름을 영문으로 임의로 설정했으나 실제 서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4〉 면담일지에 면담후기를 포함하여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하는 사례

면담일지			
과제명			
구술자		면담자	
면담 참여인		성명:	직위 및 소속 :
면담 일시/ 장소	회차	일시	장소
면담일지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공개	
면담 내용			
면담 후기			
면담 주제			
수집 자료			
특기 사항			

의 사례에 해당하는 실제 서식을 제시한 것이다.

B기관의 면담일지는 면담주제와 주요어(색인어)를 함께 작성하게 하는데, 향후 구술 아카이브 구축에서 관리하고 서비스할 것을 고려한다면 면담주제는 해당 회차의 면담에서 진행된 면담의 주요 내용 가운데 주제를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주요어(색인어)는 별도의 필드에 입력을 관리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C기관의 면담일지는 내용적으로는 면담일지와 면담후기를 함께 작성하는 방향으로 서식이 개발되어 있으나, 하나의 서식이라 하더라도 면담후기에 포함될 특화된 내용은 별도의 입력 필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D기관은 앞에서 언급한 항목을 면담일지에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필드의 명칭과 구분을 재정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각 기관마다의 구술채록의 목표와 지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서식의 입력요소를 표준화 한다면 구술채록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여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가적 구술기록의 수집과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구술기록의 입력 메타데이터의 구성을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최소한 유사 명칭 또는 동일 개념으로 매핑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로 현대사와 관련된 구술채록을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구술자가 수차례에 걸쳐 구술한 경우가 있고, 이 때 중복되는 내용을 구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면담일지의 경우 표준화는 물론 내용에 대하여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²²⁾

22) 2011년 제2회 구술사연구기관 네트워크 워크숍이 진행된 바 있는데, 이 행사의 주제는 '구술사와 교육: 실험과 가능성의 모색'이었다. 이와 같은 공동연구는 담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실무적 논의도 병행되어 앞에서 서술한 '전자적 구술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공통기능과 특화기능을 도출하여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는 등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위 행사에서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4. 구술기록의 질적 가치 제고

구술기록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구술기록을 생산하는 것이다. 구술기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술자가 충분히 자신의 기억을 발언할 수 있도록 준비, 실행, 정리의 모든 단계에서 노력해야 한다. 새롭게 생산되는 구술기록의 상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 구술기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구술기록의 가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1 구술기록의 가치

모든 구술자들이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 기억의 혼돈으로 인해 실수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경우,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배경으로 구술자는 진실이 아닌 내용을 구술할 경우가 있다.

구술된 내용은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구술자의 상황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구술기록에서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할 수 없다. 구술기록은 사건의 조서나 재판의 증언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술기록의 가치는 객관적인 진실을 얼마나 담고 있는 내용이나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풍부하고 자기감정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발언을 하느냐에 있다. 따라서 구술자의 발언 내용은 모두 진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오류이다.

그렇다면 왜 구술채록을 하는가? 그것은 구술자가 특정 주제와 사안에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로서 구술당시 어떠한 기억과 인식을 갖고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를 최대한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면담자는 구술자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관계를 환기하며, 기억을 복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구술자의 불명확한 기억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교차질문, 확인질문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술될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심도 깊은 사전연구를 통하여 포괄적인 이해를 면담자가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자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억이 왜곡되고 변조되는 맥락을 확보하고 이를 연구의 과제를 삼아 당대의 상황과 관련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 5·18기념재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소, 국립예술훈보원, 국사편찬위원회, 김대중도서관, 독립기념관,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여성사전서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전남대 5·18연구소, 전북대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전주문화재단, 제주4·3연구소, 청명문화재단, 체육(스포츠)구술사연구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한국구술사연구소, 한국구술사학회, 한국의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성대 전쟁과평화연구소, 한신대학술원 신학연구소, (사)현대사기록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사연구소로 소개되었다.

들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유추하고 분석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모든 구술자에게 출생과 성장과정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구술자의 사적영역이라기 보다는 공적기록으로서 구술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련 인물의 생애적 특징이 그가 겪은 주제 및 사안에서의 역할, 그것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판단 등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는지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면담 후에는 구술내용에 대한 해제에서 기록하여 구술기록물의 맥락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구술자의 검독이 끝난 뒤 면담자는 해제를 작성하여 구술채록 된 내용과 구술상황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해제는 기본적으로 구술의 배경과 목적을 서술한 후 구술자와의 면담내용과 상황에 대한 중요사항을 요약 정리한다. 특히 내용에 있어서 기존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 기존의 사실을 보완하는 새로운 증언 그리고 그 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발굴 등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해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향후 추가 과제로 상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두어 산출물에 포함한다면 이후 구술계획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

4.2 맥락확보

구술기록 생산 자체가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지 못했거나 남길 수 없었던 역사의 맥락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다만 구술기록도 하나의 새로운 기록이므로 이 또한 기록으로서의 맥락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록이 생산된 배경과 내력은 맥락중의 일부

이다. 따라서 구술기록생산의 준비단계의 시적인 기획에서부터 구술실행단계, 정리단계까지 과정을 기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공정에서 사용되는 서식 외에도 과정을 기록할 필요 서식을 만들어 꼼꼼히 기록하는 것은 구술기록의 맥락확보를 위한 첫 번째 노력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서술한 리드파일, 케이스파일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식이 필요하며, 면담과정에서의 장비준비 등의 오류를 줄이고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대응매뉴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구술내용에 대한 배경과 연관된 인물, 사실 등에 대한 맥락정보를 풍부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를 선정하고 질문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앞서 서술한대로 특정한 정책에 대한 구술을 하는 경우, 정책입안자의 구술을 통해 정책도입의 배경과 이유, 수립과정 등을 확보하고, 정책집행자의 구술로 정책집행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확보하고, 정책수혜자의 구술로 정책효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물에 대한 경우에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함께 채록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배경으로 어떠한 관계와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충분히 구술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구술을 통해 종합적인 내용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구술기록의 맥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관계, 배경, 정황 등에 대한 풍부한 정황과 사람마다의

관점과 경험에 대한 기억을 기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와 관련된 구술채록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인사 중심의 구술만으로는 충분히 내용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독재정권 또는 권위주의정권시절 국회와 정당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고, 5.16 군사쿠데타, 시월유신, 12.12 군사쿠데타 등으로 헌법 질서까지도 유린되었던 불행한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외 정치세력의 인식과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준정당 조직, 비합법 정치조직에 이르는 정치세력 전반에 대한 균형감 있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우리 역사 속에서 정당정치가 걸어온 길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관련인사 구술채록의 경우에도 해당 대통령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측근을 포함하여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진영의 인사, 정책수혜자로서의 국민 등 구술자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구술하게 한다면 해당시기 국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술 아카이브'에서는 구술기록 생산과정에서의 맥락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술연구주제, 구술자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 및 정보의 확보를 통해 구술기록이 풍부한 맥락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정리하면, 구술기록의 맥락이란 구술기록 생산의 직접적인 연관정보, 구술기록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과 정보, 구술기록과 연관된 인물, 사건, 주제 및 연구성과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를 포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4.3 촬영과 녹취문 작성의 중요성

이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녹음을 통해 구술 내용을 확보한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에는 디지털방식의 영상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법과 장비는 발전했으나 결과물의 질도 발전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구술자가 면담 중에 불현듯 증언하고 있는 내용의 신빙성을 더해줄 관련기록이 생각나서 가져오려고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카메라를 고정시켜놓고 촬영자가 방심하면 피사체인 구술자가 앵글 밖으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한다.

촬영자는 면담시간동안 구술자의 동작에 집중하여 표정변화나 이동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명도 매우 세심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조명에 따라 사람의 인상에 큰 차이가 있고, 영상의 질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촬영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의 스펙은 제시된 기준들이 있어서 화질과 보존성을 담보하지만 조명, 배경 및 구도 설정 등을 포함한 촬영기술은 촬영자가 갖는 고유의 조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촬영시 생산되는 음성의 경우에도 주변의 소음, 면담자와 구술자의 음성 밸런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이크의 성능,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해 녹취문 작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량한 음성이 녹음된다거나 면담자와 구술자의 음성크기의 편차가 심해 녹취문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종중 발생한다. 면담 전에 장비 및 환경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질의 촬영을 한다는 것은 산출물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며 녹취문 작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술한 내용을 녹취문으로 만드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녹취문은 작성원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일관된 원칙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녹취문은 구술자의 발언상황과 내용을 담은 음성, 영상에 비해서는 보조적 도구이지만 구술 기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록이다. 따라서 구술자의 구술내용이 최대한 오류 없이 구술내용에 부합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사투리, 외국어, 숫자, 따옴표 사용 등의 표기 문제를 포함하여, 말이 쉬었다 이어질 때, 문장 으로서는 안 끝났지만 어조 상 끝맺는 말이거나 의미상 확실히 마쳐질 때, 길게 강조하여 말 할 때, 아주 길게 강조하여 말할 때, 말끝이 강조 또는 확인으로 끝날 때, 질문을 할 때, 띄엄띄엄 말할 때, 말끝을 흐리거나 잠시 침묵하고 있을 때, 말을 더듬을 때, 동작으로 표현할 때 등 말하는 사람마다 실로 다양한 경우들이 문자로 표현되어 남겨지려면 통일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녹취문이 작성되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술채록사업을 수행하는 각 기관에서 원칙을 제시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작성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검독과정에서 기준 없이 수정을 요구해서 난항을 겪기도 한다.

작성원칙이 없으면 검독원칙도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문자나 문장부호가 아닌 것을 녹취문에 사용하도록 상식 밖의 원칙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구술팀에서 사용하는 원칙의 일부를 소개하여 사람의 말과 행동을 글로 옮기는 작업이 어느 정도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재를 보여주고자 한다.²³⁾

녹취문 작성자가 유념할 것은 형식요건만이 아니다. 구술된 내용과 관련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지식을 갖추었거나 정보검색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행해야만 한다. 해당 주제에 대한 기초지식조차도 없는 이가 녹취를 하게 되는 경우 인명, 사건명, 속담 등을 제대로 채록하지 못하여 웃지 못할 실수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산출물의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녹취문작성 원칙마련과 준비된 연구자의 참여는 양질의 녹취문을 만드는 데 매우 필요한 요건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녹취문 작성원칙들은 각기 필요에 의해 작성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녹취문 작성원칙 또한 기존의 원칙들이 모두 검토되어 국내표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촬영과 녹취문작성은 구술기록 생산에 있어서 구술기록의 형식과 내용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술기록 생산과정에서 주의깊게 협업이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야 할 전문적이면서도 유기적인 영역인 것이다.

23) 이 기준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현대 한국 구술사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팀에서 국립국어원 임동훈 연구원이 작성한 '한글맞춤법 100제'와 기존 녹취문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오류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녹취문 작성원칙

1. 소리 나는 대로 녹취하여 연결된 경우, 분절하여 표기한다.
 예) 하난 뭐냐면 >> 하나는 뭐냐면 / 그다음에 말야 >> 그다음에 말이야 / 노코 가면 >> 놓고 가면, 그러케 >> 그렇게
2. 문장으로는 종결되었으나, 증언이 연속되는 경우에도 마침표(.)로 문장을 정리한다. 또 이어지는 문장에는 쉼표(,)를 붙인다.
 예1) 거긴 뭐 그런데는 좀 이렇게 민족문제나 평화통일문제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 평화통일 그 통일외무위원회는 보니까 이른바 거물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와 앉아있어요. 여야중진들 당 대표 총재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이 점잔빼느라고 잘 저 발언을 잘 안 해.
 예2) 네, 그렇죠.
 예3) 하여튼 말이지 그 기회를 노렸어요. >> 하여튼 말이지, 그 기회를 노렸어요.
3. 문장이 종결되지 않았으나, 증언이 일단락되었을 때에는 말줄임표와 마침표(...)로 종결한다.
 예) 얘기가 조금 말입니다. 좀 ...

(중략)

10. '본(本), 제(諸), 각(各), 간(間)' 등의 띄어쓰기
 - 1) 본(本), 당(當)은 띄어 쓴다.
 예) 본(당) 연맹, 본(당) 조사 기관, 본(당) 대학에서는
 예외) 본바탕, 본부인, '본인(本人), 본고(本稿), 본회(本會), 당시
 - 2) 제(諸)는 띄어 쓴다
 예) 제 문제, 제 비용, 제 관계자 출입 금지
 예외) 제군(諸君)
 - 3) 각(各)은 띄어 쓴다.
 예) 각 가정, 각 고을, 각 학교, 각 주(州), 각 반(班)
 예외) 각처(各處), 각국(各國)

(중략)

15.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띄어쓰기: 순서, 연월일, 시각을 나타낼 때나 아라비아숫자 뒤에서는 붙여 씀을 허용함
 - 1)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예) 금 서 돈, 집 한 채, 버선 한 죽 이백만(2,000,000) 원, 오십(50) 세, 오십(50) 살
 - 2) 시간, 연(年), 월(月),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예) 제이(2)과, 이십칠(27)대 국회의원, 삼(3)학년, 두(2)시 삼십(30)분, 여덟시, 칠십(70)년, 사십(40)대, 오(5)월, 사(4)월
16. 방언의 경우 의미 전달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어투를 살려주고, 의미 전달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준어를 병기한다.
 예) 말이 많다 카더라구요. >> 발음대로 표기, 부산에는 두나가 있는데예. >> 부산에는 두나(2개)가 있는데예.

※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어휘 사례

1. 그것이 계기가 되가지고. >>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되어'로 쓸 수 있는 말은 '돼'로 표기한다.)
2. '안'과 '않'의 구분: '안'은 부사이고 '않-'은 용언의 어간이다. 그러므로 부사어 '안'은 띄어 쓴다.
 예1) 안 가다, 안 보이다, 안 먹는다, 안 어울린다, 담배를 안 피웁
 예2) 집에 가지 않다(아니하다), 먹지 않았다(아니하였다)('않다'는 '아니하다'의 준말로써 주로 '-지 않다' 구성으로 쓴다).
3. '-르는지'가 맞고, '-르런지'는 틀린 표현이다.

(후략)

5. 결 론

우리나라에서 구술채록은 1980년대 이후 학문적 토론과 방법론 연구와 함께 다양한 구술채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접근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술사연구는 실증주의에 입각한 문헌자료중심의 연구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방식의 연구로서 역사서술의 주체를 넓혀내고 서술방향을 기존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을 극복하고 다원화된 서술방식을 추구하는 연구영역이다. 그리고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기록을 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구술사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이고 현장에서의 가변적 요소가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경험과 유연함이 매우 중요시되는 분야이다.

이와 같은 구술사연구에 있어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가치 있고 질 높은 구술기록을 생산

하기 위해서는 구술에 대한 인식, 환경, 프로세스, 기법 등의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구술기록이 생산되어야만 한다. '체계적'이란 전략, 방법론, 산출물관리가 일련의 구조를 갖추고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술기록생산에 있어서 전략을 세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제 구술채록을 진행하는 실행단계 구술기록물을 취합, 마무리하는 정리단계에 있어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공유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술기록 생산과정의 모든 단계는 철저히 구술기록의 활용을 염두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구술의 활성화는 새로운 기록의 등장과 새로운 역사주체의 등장을 동시에 알리는 신호이다.

학문적 논의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자산의 축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효율성 높은 구술기록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권미현. 2004.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10: 112-144.

김귀옥. 2006. 한국 구술사 연구현황, 쟁점과 과제. 『사회와 역사』, 71: 313-348.

김귀옥. 2008. 구술사연구현황과 구술사 아카이브의 구축. 『국가기록연구』, 4: 38-39.

김귀옥. 2010. 구술사 쓰기의 방법과 절차. 『구술사연구』, 1: 77-115.

김기봉. 2011. 소통과 매체로 보는 사학사. 『역사문화연구』, 40: 369-402.

김명훈. 2010a.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73-112.

김명훈. 2010b.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산 및 정리·보존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7-29.

김호연, 엄찬호. 2010. 구술사를 활용한 인문치료의 모색. 『인문과학연구』, 24: 361-383.

- 박순철. 2009. 디지털 구술아카이브 구축 및 사례 - 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구술채록 관련 관계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대통령기록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구술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방안 및 구술채록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국가기록원.
- 설문원. 2010. 지역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윤택림 편역. 2010.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 윤택림, 함한희. 2006. 『구술사연구방법론』. 아르케.
- 윤택림. 2001. 역사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본 역사학 - 구술사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6: 213-234.
- 윤택림. 2012. 왜 구술사인가: 한국 근현대사의 구술 기록의 중요성. 『기록인』, 20.
- 이기우, 임명진 옮김. 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 이용기. 2009.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역사와현실』, 71: 291-319.
- 이용기. 2010. '새로운 민중사'의 모색과 구술사 방법론의 활용. 『역사문화연구』, 37: 407-435.
-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63-184.
- 이정연, 이정연, 유종덕, 이종윤. 2011.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맥락 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연구』, 30: 57-88.
- 이호신. 2010. 구술자료의 저작권문제에 관한 연구. 『구술사연구』, 1: 49-75.
- 장신기. 2009. 구술아카이브 구축 방법론 -김대중도서관의 사례. 『구술채록 관련 관계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대통령기록관.
- 조용성. 2010. 구술기록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233-278.
- 지수걸. 2010. '구술사하기'와 지역문화운동. 『역사연구』, 19: 227-239.
-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연구』, 30: 3-55.
-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선인.
- 함한희. 2010. 구술사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구술사연구』, 1: 7-4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Young-Sung. 2010. "A Study on the Collecting Policy of Oral History Archives." *Research of Archival Science*, 25: 233-278.
- Choi, Jeong-eun. 2011. "A Study on Archiving of "Social Memory" and Oral Record Focused on the Role of Archivist in the Stages of Oral Record Collecting and Planning." *Research*

- of Archival Science*, 30: 3-55.
- Hahm, Han-Hee. 2010.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in the Study of Oral Hist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 7-47.
- Kim, Gi-bong. 2011. "Historiography in Terms of Communication and Media."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40: 369-402.
- Kim, Gwi-Ok. 2006. "The Situation of Oral History Research in Korea, Current Issues and Topics." *Society and History*, 71: 313-348.
- Kim, Gwi-Ok. 2010. "Method and Procedure of the Oral-History Writing: A Case-Based Theorizing." *Research of Oral History*, 1: 77-115.
- Kim, Ho-Yeon, & Eom, Chan-Ho. 2010. "Search for Humanities Therapy Utilizing Oral History: Memory, Trauma and History Therapy." *Research of Humanities & Sciences*, 24: 361-383.
- Kim, Myoung-Hun. 2010. "A Study on the Meanings and Roles of Oral History from a Perspective of Archival Science." *Research of Archival Science*, 24: 73-112.
- Kwon, Mi-hyun. 2004. "A Study on Archival Methodology for Oral History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 112-144.
- Lee, Ho-Sin. 2010. "A Study on Copyright Issues for Oral History Interviews." *Research of Oral History*, 1: 49-75.
- Lee, Jung-Yeon, Lee, Jung-Yeoun, Ryoo, Jong-Duk, & Lee, Jong-Yoon. 2011. "A Study on Metadata Structuralization for Context Representation of Women's Oral Life History." *Research of Archival Science*, 30: 57-88.
- Lee, Jung-Yeoun. 2009. "A Study on Modeling Metadata and Developing Standard Elements to Establish Oral History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163-184.
- Lee, Yong-Gi. 2009. "Conventional History Meets Oral History -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for Oral History, Figured from a Historian'S Perspective."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71: 291-319.
- Lee, Yong-Gi. 2010. "'New Minjung History' and the Oral History as Its Methodology."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37: 407-435.
- Seol, Moon-Won. 2010. "Directions of Implementing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Local Regions." *Research of Archival Science*, 26: 103-149.